



계란생산계군 증가에 따른 약세권 이어질 듯

◆ 동향

5월들어 한차례 난가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농가수취가가 원가이하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두달 동안 개당 10원 이상을 밑지면서 농가 채산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많은 농가에서 도계도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난가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것은 산란계사육 수수가 이미 적정수를 크게 넘어섰으며, 신계군의 계란생산가담 증가로 계란생산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와 본회에서는 여름철 비수기를 앞두고 농가의 조기도태와 병아리입추수 감축을 호소하고 나섰으나 워낙 생산기반이 두터워 과잉생산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불황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축통계에 따르면 산란계사육수는 62,524천수로 전년대비 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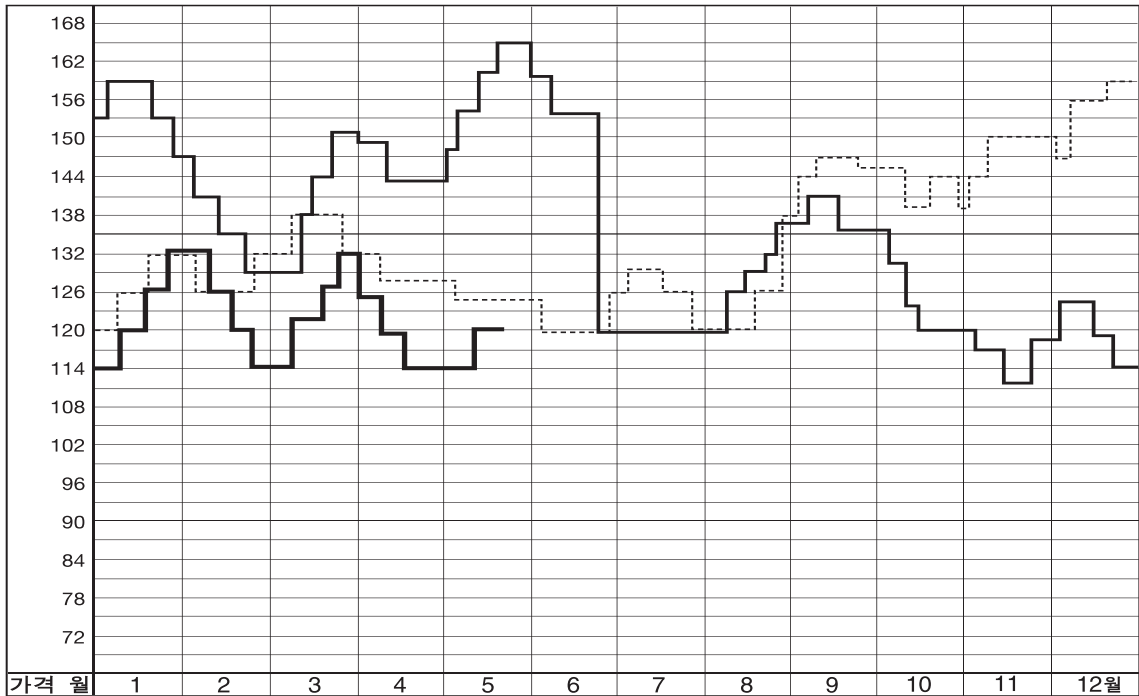
◆ 자료분석

4월 산란중계입식수는 56,000수로 전년대비 48.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산란계판매수는 3,178천수로 전년대비 13.2%증가하였다. 난가가 약세를 띠며 따라 실용계병아리 수요도 위축되고 있는 반면, 중계입식수를 토대로 추산한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은 6월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실용계단가는 약세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산란실용계 거래단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당 850~1,05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월 육추사료와 산란사료 생산량은 25,677톤, 174,805톤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2%, 4.0%증가하였다. 산란중계사료는 6,242톤으로 전년대비 46.2%증가하였다.

◆ 전망

난가불황은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위로 인해 계란보관기간이 단축되면서 덩핑계란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철 티푸스 확산으로 인해 계란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어 기온변화에 따른 산란을 동향을 감안하여야 하겠으나 생산기반이 두터워 난가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겠다. 여름철 난중저하현상이 생기면서 중량별 공급차가 생기겠으며, 최근 과채류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계란 소비를 신장시킬 만한 요인이 부재해 전반적으로 유통에서 계란 재고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난가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병아리를 입추할 여력이 안 되는 많은 농가에서는 도태보다는 환우에 가담하고 있어 여름철 비수기까지 생산과잉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난가호조에 따라 사육규모를 더욱 확장한 농가가 많아 생산기반자체가 커진 만큼 여름철 비수기에 들어서면서 난가상황은 더욱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8-- 2009- 2010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3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4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7.2	164.5	1,122	1,176
5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6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7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09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0						
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9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10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11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계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2008년 1월부터 중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